다음주에 볼만한 차트

주식전략/시황. 한대훈 / 3773-8515, handaehoon@sks.co.kr
연구원. 이재윤 / 3773-8921, jyun.lee@sk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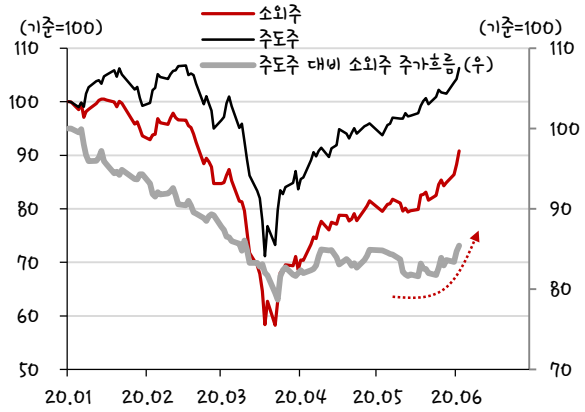
SK 증권

NEW 와 OLD 의 공존 ②

2020-06-05

- OLD 주식들의 빠른 반등세. 중장기적으로는 NEW 업종에 대한 긍정적 시각 유지. 단기적으로는 OLD 업종에 투자기회가 있다는 기존의견 유지
- 변수는 국제유가와 미국 내 시위확산. 다음주 OPEC 정례회의가 중요(6/~10). 당선가능성 마저 역전당한 트럼프의 다음 행보에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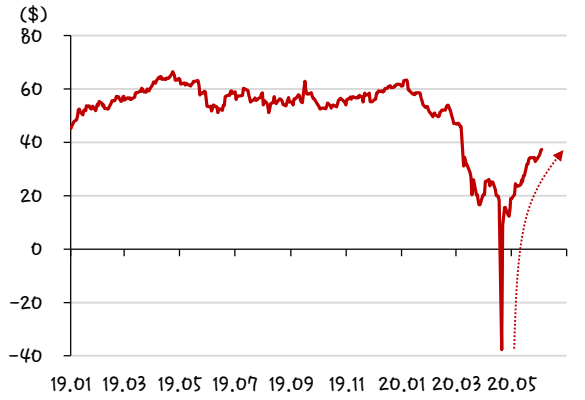
소외주들의 반등이 최근 거세다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주: 소외주는 그 동안 주가수익률이 부진했던 건설/건자재, 조선, 철강, 자동차, 은행 등 13 개 업종으로 구성

코스피가 2,100 선을 돌파했다.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순환매 장세가 연출되면서 OLD 주식 종목들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외주의 상대주가가 더 좋다. 지난주 자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NEW 업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지만, 단기적으로 OLD 업종에서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한바 있는데 이런 흐름은 이번주도 이어질 전망이다. 소외 업종의 3Q 및 4Q 당기순이익 추정치도 반등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NEW 업종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OLD 업종에 투자기회가 있다는 기존 의견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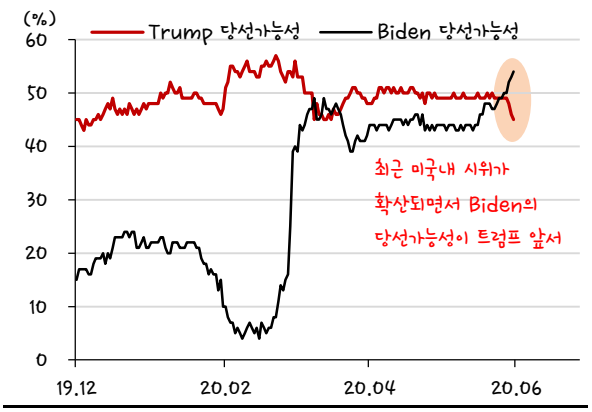
유가 흐름 추이 : 최근 유가도 반등에 성공했다



자료: REFINITIV, SK 증권

다만 변수는 국제유가와 미국 내 시위확산이다. 이 두 변수는 하반기 증시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변수인만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가는 최근에 빠르게 반등했다. 감산 연장 소식이 유가 상승을 견인했다. 향후 유가 향방에 중요한 OPEC 정례회의가 다음주 예정돼있다(6/9~10). 현재로선 감산기간 연장이 유력해보인다. 지난 1973 년 4 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급등을 하며 유가상승發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타나며 Nifty Fifty 시대는 막을 내렸다. 당사가 하반기전망(Nifty Fifteen)자료를 통해 유가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트럼프와 바이든 당선가능성 : 최근 바이든이 역전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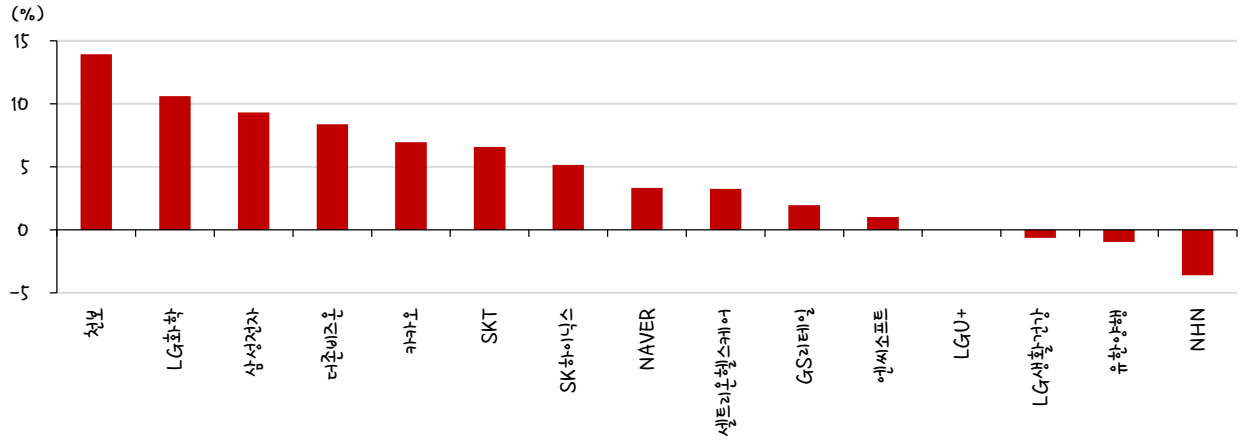


자료: PredictIT, SK 증권

미국 내 시위확산도 변수다(3~4p 참고). 시위확산은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변수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패권경쟁을 재개했다. 코로나 19 와의 전쟁에서도 아직 승리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시위확산으로 미국이 분열되고, 시위로 인해 코로나 19 가 재확산되면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을 갖고 있던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 코로나 19 에 대응 실패에 대한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흑인들과 소수인종이 결집하면 트럼프의 재선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여론조사에 뒤지던 트럼프는 당선가능성에서도 바이든에 역전을 허용했다. 바이든의 당선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부정적인만큼 미국 내 시위의 진행과정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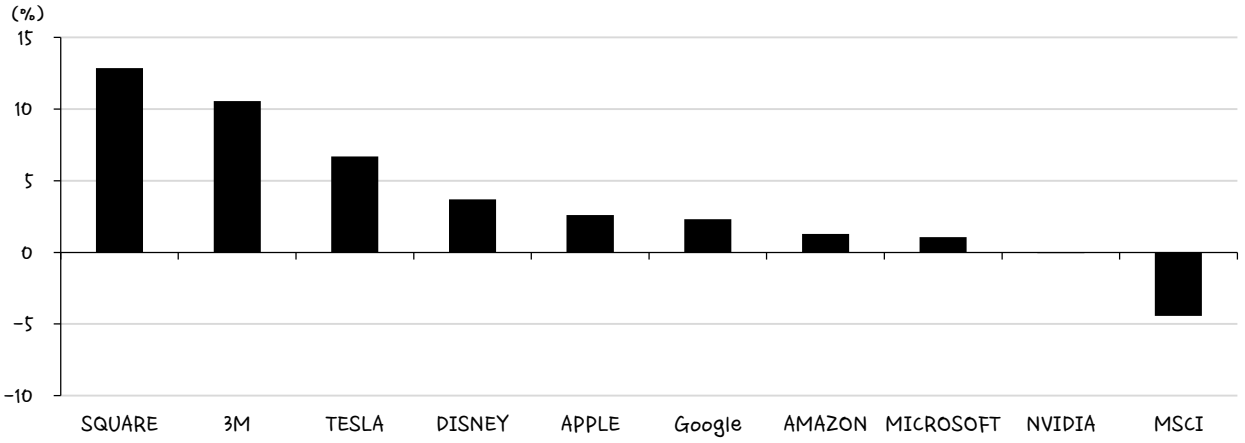
지금 주목해야 할 Key Chart

SK 증권 하반기 전망 국내주식 추천 15 종목, 자료발간 이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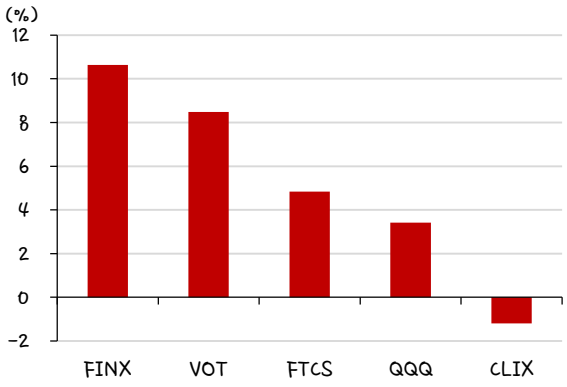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SK 증권 하반기 전망 해외주식 추천 10 종목, 자료발간 이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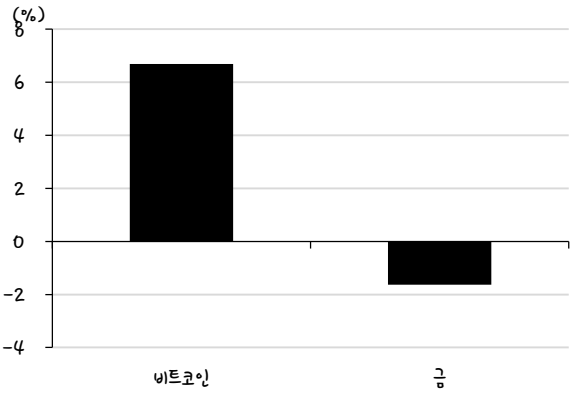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SK 증권

SK 증권 하반기 전망 ETF 추천 5 종목, 자료발간 이후 수익률



자료: REFINITIV, SK 증권

하반기 전망의 Satellite 로 언급한 금과 비트코인, 자료발간 이후 수익률



자료: REFINITIV, SK 증권

Appendix. 미국 시위 확산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5/25,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인 데릭 쇼반이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계속 눌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미국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플로이드가 목이 눌린 채 I can't breathe 라고 호소하는 영상이 촬영돼 인터넷으로 급속히 유포되기 시작됐기 때문이다. 항위시위는 미국 전역 150 개 이상의 도시로 확산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찰의 폭력적인 행동이다. NYT 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봉쇄조치와 경기 둔화, 대규모 실업사태 발생에 따른 불먼이 풀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분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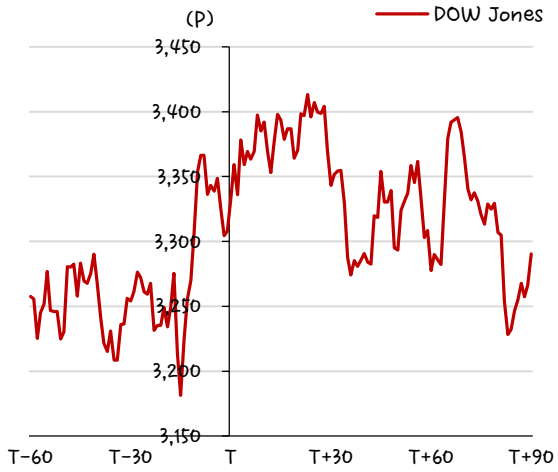
하지만 미국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150 년 이상된 분노가 표출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1865 년 남북전쟁이 끝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종갈등은 무엇일까?

남북전쟁이 끝난 지난 1865 년부터 1870 년까지 노예제 폐지와 동등 보호조항, 투표권 보장 등을 수정헌법 13·14·15 조를 명시했다. 하지만 헌법 수정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지역의 차별까지 없애지 못했다. 남북전쟁에서 승리해 1865 년 노예제를 폐지하고 연방을 지킨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남부지역을 고려하느라 인종차별을 철저히 종식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링컨은 1864 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당시 부통령으로 앤드루 존슨을 지명했다. 존슨은 당론으로 노예제를 찬성했던 민주당에서 드물게 노예제에 반대한 인물이었다. 링컨은 남북전쟁 뒤 미국의 통합을 염두에 두면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남부 인물인 그를 중용했다.

그러던 1865 년 링컨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존슨은 링컨을 이어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 된 그는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주에게 동정적이고 유화적인 정책을 폈다. 존슨은 남부의 주들이 교묘하게 흑백분리 법안을 제정해 차별을 법제화·제도화하는 것을 방치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종차별과 흑백분리를 비호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선거권만 가진 2 등시민'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투표권조차 갖은 제약으로 제대로 행사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짐 크로법(Jim Crow Laws)이 통과됐다. 짐 크로법이란 흑인과 백인이 같은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없도록 구역을 분리하는 법안이다. 짐 크로는 흑인 광대 캐릭터로 '짐크로 법'은 교묘하게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백인 사회와 분리하고 차별하는 것을 방치하는 각 주의 법들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다.

이후 1883 년 미국 대법원은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동등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 14 조가 정부 활동에만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인종차별을 어겨도 연방정부가 그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없게 됐다. 1896 년 5 월에는 연방대법원이 인종 간에 '분리하되, 평등하면(separate but equal) 합헌'이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1/8 이 흑인 혈통인 호머 플래시라는 원고가 전차에서 백인 칸에 탔다가 차장에게 쫓겨나자 재판을 걸었는데 루이지애나 주 소송에서 패배했고,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국 패배했다. 플래시와 루이지애나 주 판사인 존 퍼거슨의 이름을 따서 '플레시 대 퍼거슨 재판'으로도 불린다. 미국에서 인종 간 분리가 그 뒤 100 년 간 합헌적 지위를 얻게 되는 어두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큰 영향을 끼쳤다. 주택계약·대출·직업선택 등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근거가 됐다. 대학이나 고교 등 공립학교와 공원이나 주점을 비롯한 공공장소, 기차를 비롯한 대중교통에서 대놓고 인종 분리를 실시하는 계기가 됐다. 심지어 화장실이나 식당, 공공시설 식수대에서도 인종격리가 이뤄졌다.

1992 년 LA 폭동 전후의 주가 움직임



자료: REFINITIV, SK 증권
주: T 는 LA 폭동 당시 킹을 구타했던 백인 경찰관 4 명이 무죄평결을 받은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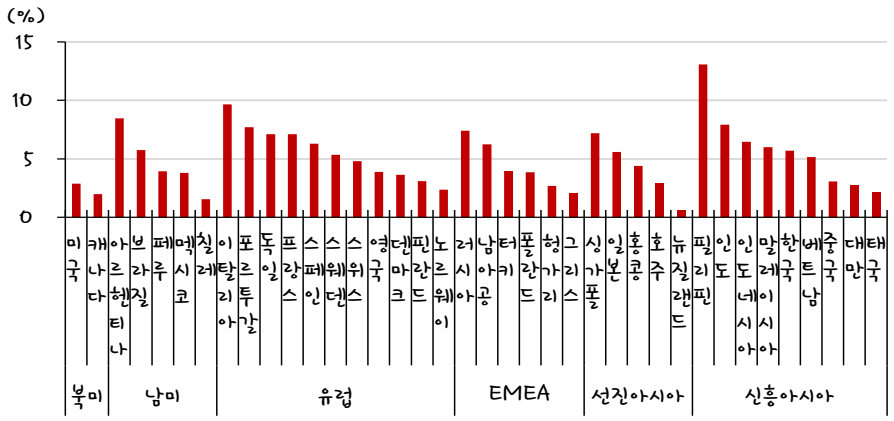
최근에는 1992 년에 있었던 LA 폭동이 가장 큰 사건이었다. 1991 년 신호위반으로 경찰단속을 당한 로드니 킹은 경찰관들로부터 몰매를 맞는 장면이 촬영돼 공개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닝 킹은 청력을 잃었지만 폭행에 가담했던 경찰들은 풀려났다. 이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시위를 일으켰고, LA 한인타운이 공격을 받았다.

미국에서 시위가 확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위험해졌다. 코로나 19 에 대응 실패에 대한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흑인들과 소수인종이 결집하면 트럼프의 재선가도에 불리하다. 가뜩이나 현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바이든에 뒤지고 있다. 지난 1992 년 대선에서 경제문제(It's the economy, stupid)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클린턴 후보는 LA 폭동의 여파로 당시 흑인 지지율 83%를 기록하며 조지 H.W 부시의 재선을 저지했다.

더구나 흑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친도 원망스럽다. 1896 년 판결난 '분리하되, 평등하면(separate but equal) 합헌'의 영향으로, 당시에는 유색인종이 아파트나 주택을 얻을 때 집 주인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하는게 비일비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친인 프레드 트럼프는 뉴욕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유색인종을 차별하다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1950 년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프레드 트럼프의 부동산을 임대해 거주하면서 인종차별적인 태도와 차별적인 임대사업을 목격한 포크 가수 우디 거스리는 1954 년 이를 담은 '올드맨 트럼프(Oldman Trump)'라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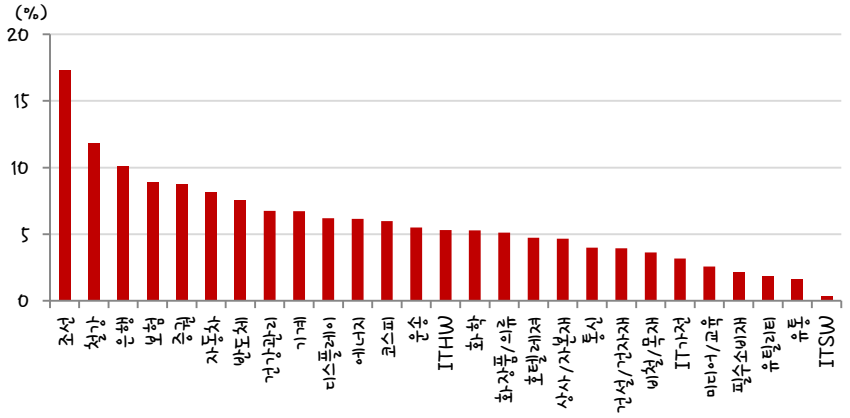
다음주에 볼만한 차트

주요국 증시 주간 수익률 (5/2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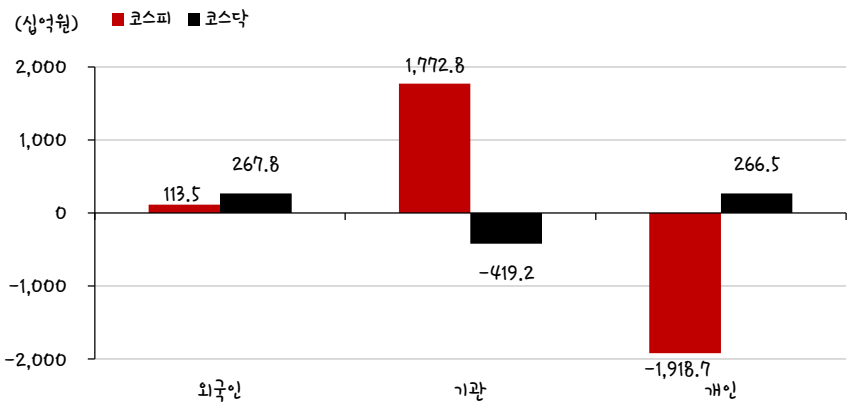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SK 증권

국내 업종별 수익률 (5/2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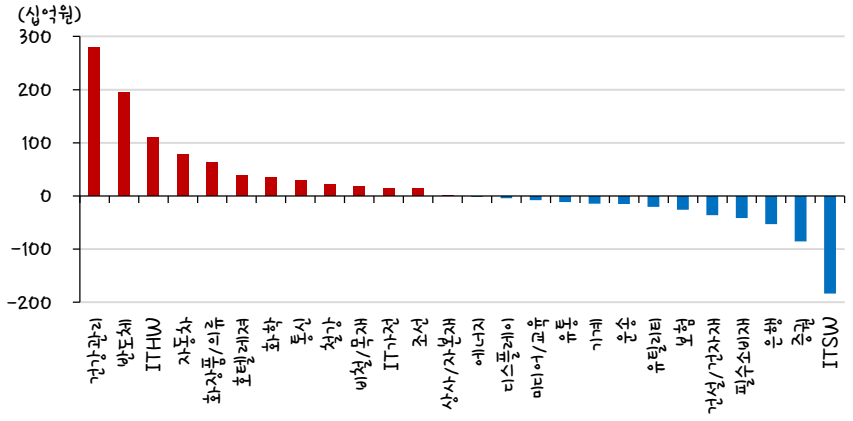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수급주체별 주간 순매수 현황 (5/2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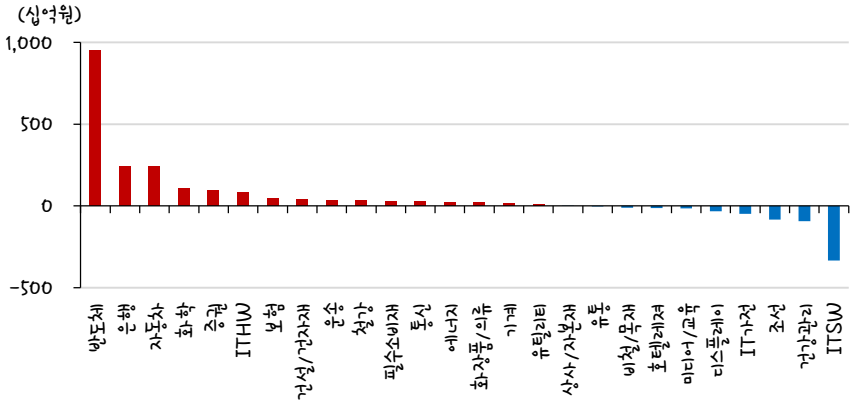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업종별 외국인 순매수 현황 (5/2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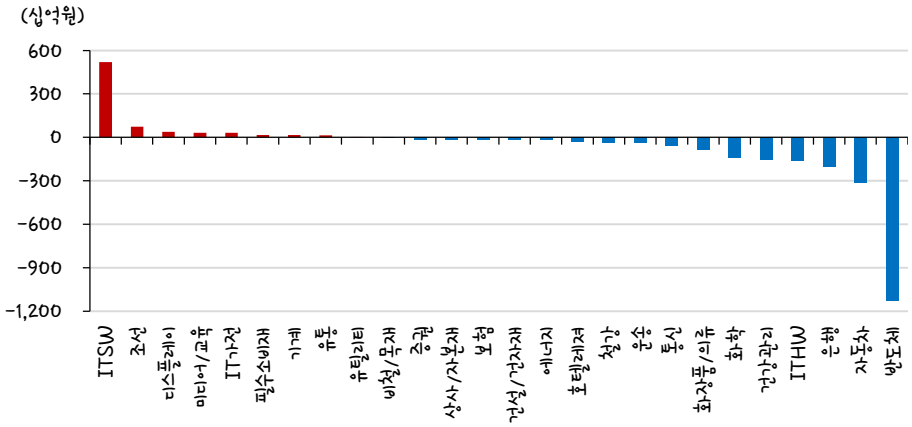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업종별 기관 순매수 현황 (5/29~6/4)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업종별 개인 순매수 현황 (5/29~6/4)



자료: Quantiwise, SK 증권

다음주에 볼만한 차트

2020-06-04, (목)

섹터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수익률(해외)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Memebers (단위 : 각국 거래소 통화 기준)

Company	국가	Close	1D	1W	1M	YTD
Apple	USA	325.1	0.6%	2.2%	10.9%	10.7%
American Express	USA	105.4	6.4%	4.1%	22.0%	-15.3%
Boeing	USA	173.2	12.9%	15.8%	31.7%	-46.8%
Caterpillar	USA	127.1	3.1%	3.8%	18.0%	-13.9%
Cisco Systems	USA	46.9	0.1%	2.1%	13.5%	-2.1%
Chevron	USA	97.2	2.6%	3.5%	6.3%	-19.4%
Walt Disney	USA	122.2	2.9%	0.5%	18.4%	-15.5%
Dow Inc	USA	41.6	2.5%	4.5%	25.9%	-
Walgreens Boots Alliance	USA	43.6	0.1%	1.5%	2.7%	-26.0%
Goldman Sachs Group	USA	210.6	3.1%	0.4%	19.6%	-8.4%
Home Depot	USA	251.0	-0.7%	1.5%	13.1%	14.9%
IBM	USA	129.1	2.4%	2.8%	6.1%	-3.7%
Intel	USA	61.9	-0.3%	-2.6%	6.8%	3.5%
Johnson & Johnson	USA	148.7	0.3%	2.6%	0.3%	1.9%
JPMorgan Chase & Co	USA	104.3	5.4%	2.9%	13.2%	-25.2%
Coca-Cola	USA	47.9	2.1%	2.5%	6.1%	-13.5%
McDonald's	USA	193.3	3.0%	3.0%	6.3%	-2.2%
3M	USA	161.2	2.3%	1.9%	8.6%	-8.6%
Merck & Co	USA	82.1	1.5%	5.8%	6.8%	-9.8%
Microsoft	USA	185.4	0.2%	2.0%	3.6%	17.5%
NIKE	USA	104.1	3.3%	4.2%	21.4%	2.8%
Pfizer	USA	36.2	0.0%	-3.3%	-3.9%	-7.7%
Procter & Gamble	USA	118.5	0.4%	4.1%	2.4%	-5.1%
Travelers	USA	114.5	3.1%	7.2%	18.1%	-16.4%
UnitedHealth Group	USA	305.4	-0.3%	0.5%	6.2%	3.9%
United Technologies	USA	67.5	6.4%	1.2%	14.6%	-23.6%
Visa	USA	196.9	0.3%	2.1%	11.8%	4.8%
Verizon	USA	56.8	0.8%	3.1%	1.0%	-7.4%
Walmart	USA	123.5	-0.4%	0.8%	-0.2%	3.9%
Exxon Mobil	USA	49.2	4.1%	6.5%	9.7%	-29.4%

Materials (단위 : 각국 거래소 통화 기준)

Company	국가	Close	1D	1W	1M	YTD
BHP Billiton	AUS	36.3	2.6%	5.5%	21.6%	-6.6%
BASF	DEU	55.4	6.4%	11.2%	20.9%	-17.7%
Rio Tinto	AUS	97.4	0.5%	6.4%	19.8%	-3.0%
SABIC	SAU	88.0	-1.8%	2.2%	27.5%	-5.5%
Glencore	GBR	168.5	4.1%	7.6%	22.5%	-28.4%
Vale S.A.	BRA	53.7	0.4%	6.0%	22.1%	0.7%
Air Liquide S.A.	FRA	126.0	2.2%	8.5%	11.6%	-0.2%
Nutrien	CAN	50.8	3.0%	6.7%	1.6%	-26.4%
Shin-Etsu Chemical	JAP	12,690.0	0.5%	1.3%	10.3%	5.2%
LyondellBasell	USA	70.5	3.1%	4.7%	29.7%	-25.4%
Air Products & Chemicals	USA	248.5	1.3%	5.7%	11.2%	5.7%
Southern Copper	USA	38.3	2.1%	5.5%	18.4%	-9.9%
Linde PLC	USA	212.9	3.2%	10.2%	16.5%	0.0%
Alcoa	USA	10.8	8.6%	10.3%	38.1%	-49.9%

Industrials (단위 : 각국 거래소 통화 기준)

Company	국가	Close	1D	1W	1M	YTD
Honeywell Int'l	USA	153.4	3.4%	3.2%	13.4%	-13.4%
Siemens	DEU	105.0	2.7%	5.0%	28.8%	-9.9%
Union Pacific	USA	178.1	4.2%	2.4%	15.0%	-1.5%
Lockheed Martin	USA	402.6	3.3%	1.4%	5.9%	3.4%
UPS	USA	103.7	2.5%	4.0%	14.6%	-11.5%
Airbus	FRA	68.4	7.4%	11.9%	24.4%	-47.6%
Fedex	USA	138.1	2.9%	5.9%	19.2%	-8.7%
General Dynamics	USA	155.2	4.0%	3.2%	24.4%	-12.0%
Raytheon	USA	117.0	0.0%	0.0%	0.0%	-46.8%
Northrop Grumman	USA	336.0	2.7%	-2.0%	4.2%	-2.3%
Vinci	FRA	90.1	4.8%	6.8%	28.2%	-9.0%
Illinois Tool Works	USA	178.5	3.6%	1.3%	12.7%	-0.7%
Deutsche Post	DEU	30.7	4.3%	5.8%	17.4%	-9.9%
Canadian National Railway	CAN	120.8	2.0%	1.9%	8.1%	2.9%

Energy (단위 : 각국 거래소 통화 기준)

Company	국가	Close	1D	1W	1M	YTD
Royal Dutch Shell	GBR	1,393.2	4.4%	5.1%	10.1%	-37.7%
Petro China	HKG	2.8	3.0%	4.5%	8.6%	-29.2%
Total	FRA	36.4	2.5%	7.0%	19.5%	-26.0%
BP	GBR	339.3	3.3%	6.2%	12.9%	-28.1%
China Petroleum	HKG	3.6	3.5%	0.6%	-0.8%	-24.1%
Schlumberger	USA	19.6	4.0%	2.9%	20.8%	-51.2%
Petrobras	BRA	21.5	0.3%	7.7%	23.5%	-28.9%
Reliance Industries	IND	1,541.7	0.4%	6.6%	8.4%	3.1%
Equinor	NOR	149.3	2.9%	-1.0%	11.7%	-14.9%
Shenhua Energy	HKG	14.6	0.7%	5.8%	11.6%	-10.1%
Conocophillips	USA	45.1	2.1%	1.0%	11.8%	-30.6%
CNOOC	HKG	9.6	4.6%	7.3%	17.0%	-26.3%
ENI S.P.A.	ITA	9.0	2.6%	6.5%	9.6%	-35.0%
EOG Resources Inc	USA	55.4	1.0%	5.0%	18.5%	-33.9%
Rosneft Oil Co.	RUS	397.0	2.6%	5.9%	19.9%	-11.7%
Gazprom	RUS	208.0	3.0%	6.8%	12.0%	-18.9%
Lukoil	RUS	5,549.5	2.8%	3.7%	14.5%	-10.0%
Suncor Energy	CHN	25.4	2.6%	4.7%	7.0%	-40.4%
Enterprise Products Partners	USA	20.1	2.1%	3.6%	17.9%	-28.6%
Enbridge	CHN	44.9	-0.5%	1.5%	5.4%	-13.1%
Occidental Petroleum	USA	15.5	4.7%	7.1%	-0.5%	-62.5%

Consumer Discretionary (단위 : 각국 거래소 통화 기준)

Company	국가	Close	1D	1W	1M	YTD
Amazon	USA	2,478.4	0.2%	2.8%	7.0%	34.1%
Toyota Motor	JAP	6,915.0	2.1%	2.6%	6.5%	-10.4%
Comcast	USA	41.3	1.3%	3.4%	14.0%	-8.2%
LVMH	FRA	393.5	2.2%	5.2%	16.2%	-5.0%
Netflix	USA	422.0	-1.2%	0.5%	-1.4%	30.4%
Naspers	ZAF	293,490.0	0.7%	-0.8%	2.3%	28.1%
Booking Holdings	USA	1,726.0	4.3%	1.6%	22.1%	-16.0%
Inditex	ESP	26.7	3.9%	9.2%	22.9%	-15.0%
Volkswagen	DEU	152.1	3.3%	-0.1%	17.3%	-12.2%
Daimler	DEU	38.2	5.5%	6.5%	27.1%	-22.7%
Charter Comm.	USA	547.3	0.4%	4.2%	6.1%	12.8%
Starbucks	USA	79.6	2.3%	1.2%	10.7%	-9.5%
Adidas	DEU	250.6	3.6%	7.3%	26.1%	-13.5%
Lowe's	USA	132.8	0.7%	3.8%	23.7%	10.9%
Tesla	USA	883.0	0.2%	7.6%	16.0%	111.1%
TJX	USA	55.2	1.7%	-0.1%	15.8%	-9.5%
Marriott International	USA	99.9	4.5%	2.0%	21.0%	-34.0%
Gree Electric Appliances	CHN	58.0	-0.1%	3.2%	5.9%	-11.5%
Carnival	USA	17.3	2.3%	0.1%	20.3%	-66.1%
Sands China	HKG	30.8	-0.2%	0.0%	1.3%	-26.1%
Nissan Motor	JAP	441.0	7.5%	6.1%	26.6%	-30.7%

다음주에 볼만한 차트

2020-06-04, (목)

Consumer Staples (단위 : 각국 거래소 통화 기준)

Company	국가	Close	1D	1W	1M	YTD
Nestle	CHE	103.9	0.9%	2.5%	4.1%	-0.9%
AB Inbev	BEL	48.1	7.7%	13.6%	25.2%	-33.8%
Unilever	NLD	47.5	1.9%	5.2%	7.1%	-7.2%
Pepsico	USA	132.8	0.1%	1.5%	1.5%	-2.8%
Philip Morris	USA	74.2	0.7%	0.4%	1.2%	-12.8%
Kweichow Moutai	CHN	1,399.3	-0.8%	4.6%	10.6%	18.3%
BAT	GBR	3,241.5	1.2%	-1.0%	10.1%	0.3%
L'oreal	FRA	270.4	3.5%	7.6%	8.1%	2.4%
Altria Group	USA	40.2	1.4%	3.0%	5.8%	-19.4%
AmBev	BRA	13.3	2.2%	-1.0%	12.7%	-29.0%
Diageo	GBR	2,894.0	2.7%	-0.8%	5.8%	-9.6%
Costco Wholesale	USA	306.6	-0.1%	0.2%	0.7%	4.3%
Kraft Heinz	USA	31.3	-0.4%	0.9%	8.2%	-2.6%
CVS Health	USA	66.9	0.0%	1.3%	11.5%	-10.0%
Mondelez International	USA	52.1	-0.2%	3.5%	4.1%	-5.4%

Health Care (단위 : 각국 거래소 통화 기준)

Company	국가	Close	1D	1W	1M	YTD
Novartis	CHE	82.5	-0.1%	1.6%	2.4%	-10.3%
Roche Holding	CHE	339.1	1.3%	2.1%	0.4%	8.0%
AbbVie	USA	90.9	-0.2%	1.0%	11.0%	2.7%
Amgen	USA	221.0	-1.2%	-1.7%	-4.3%	-8.3%
Novo Nordisk	DNK	430.3	-0.8%	2.6%	-0.4%	11.3%
Abbott Laboratories	USA	91.4	-1.3%	0.7%	1.7%	5.2%
Medtronic	USA	97.1	-0.2%	1.1%	1.9%	-14.4%
Bristol Myers Squibb	USA	60.2	-0.7%	-0.3%	0.1%	-6.2%
Sanofi	FRA	88.8	0.0%	3.0%	0.4%	-0.9%
Gilead Sciences	USA	74.4	1.6%	-0.7%	-7.3%	14.5%
Bayer	DEU	65.6	2.1%	5.6%	11.4%	-9.9%
GlaxoSmithKline	GBR	1,664.6	0.8%	1.0%	0.1%	-6.4%
Astrazeneca	GBR	8,596.0	0.6%	3.2%	2.8%	13.0%
Thermo Fisher	USA	347.2	-0.8%	2.9%	6.3%	6.9%
Eli Lilly & Co.	USA	152.5	-0.9%	4.7%	-0.5%	16.1%
Celgene	USA	108.2	0.0%	0.0%	0.0%	0.0%

Information Technology (단위 : 각국 거래소 통화 기준)

Company	국가	Close	1D	1W	1M	YTD
Alphabet	USA	1,439.3	-0.2%	1.3%	8.8%	7.5%
Tencent	HKG	432.6	0.5%	3.0%	8.2%	15.2%
Alibaba	USA	218.6	2.0%	8.7%	14.4%	3.1%
Facebook	USA	230.2	-1.1%	0.4%	12.1%	12.1%
Taiwan Semicon	TWN	301.0	1.5%	1.5%	2.0%	-9.1%
Oracle	USA	53.5	0.4%	0.5%	3.4%	1.0%
Nvidia	USA	350.8	-0.6%	2.9%	20.4%	49.1%
SAP	DEU	118.6	2.0%	5.9%	9.8%	-1.5%
Adobe Systems	USA	389.9	-0.1%	3.9%	11.7%	18.2%
Texas Instruments	USA	127.2	3.7%	8.0%	15.1%	-0.8%
Broadcom	USA	309.5	3.8%	7.6%	18.0%	-2.1%
Paypal	USA	156.8	-0.5%	7.4%	26.8%	44.9%
ASML	NLD	308.1	3.8%	7.1%	19.5%	16.8%
Baidu	USA	112.5	4.9%	3.9%	18.7%	-11.0%
Qualcomm	USA	84.1	-0.6%	6.1%	11.1%	-4.7%
Micron Technology	USA	48.9	4.5%	-1.1%	10.0%	-9.0%
Tokyo Electron	JAP	22,905.0	1.0%	4.6%	5.7%	-4.3%
Nintendo	JAP	44,630.0	1.3%	1.2%	0.0%	1.5%
Applied Materials	USA	57.8	3.6%	2.5%	21.5%	-5.3%

Telecommunication Services (단위 : 각국 거래소 통화 기준)

Company	국가	Close	1D	1W	1M	YTD
AT&T	USA	31.5	1.7%	-1.1%	6.5%	-19.4%
China Mobile	HKG	55.0	0.0%	1.1%	-8.6%	-16.1%
NTT Docomo	JAP	2,938.5	-0.3%	-1.4%	-7.3%	-3.3%
Nippon Telegraph	JAP	2,454.0	-0.6%	0.0%	0.8%	-11.0%
Softbank	JAP	5,121.0	-1.2%	8.2%	11.1%	7.7%
Deutsche Telekom	DEU	15.0	2.0%	6.2%	14.8%	2.8%
Vodafone	GBR	136.6	1.2%	4.0%	24.5%	-6.9%
KDDI	JAP	3,165.0	0.2%	2.3%	2.5%	-2.7%
America Movil SAB	MEX	15.3	1.2%	0.4%	3.7%	1.1%
T-Mobile	USA	101.2	0.8%	4.1%	13.8%	29.1%
Telefonica	ESP	4.7	4.4%	12.1%	8.4%	-25.2%
Orange	FRA	11.3	2.6%	7.8%	4.5%	-14.1%
Singapore Telecom	SGP	2.6	1.2%	-1.9%	-5.5%	-23.7%
Emirates Telecom	ARE	16.5	-1.1%	6.2%	10.4%	0.9%
Saudi Telecom	SAU	99.5	-0.2%	-0.5%	12.6%	-1.3%
Bell Canada Enterprises	CAN	58.6	1.5%	3.9%	4.0%	-2.7%

Utilities (단위 : 각국 거래소 통화 기준)

Company	국가	Close	1D	1W	1M	YTD
Nextera Energy	USA	259.6	1.2%	7.7%	12.8%	7.2%
Enel S.P.A	ITA	7.5	4.4%	13.9%	24.9%	6.1%
Yangtze Power	CHN	18.2	0.9%	6.9%	4.1%	-1.2%
Duke Energy	USA	89.2	1.8%	6.6%	8.0%	-2.2%
Iberdrola	ESP	10.1	1.8%	5.3%	13.1%	10.2%
Southern Co/the	USA	58.7	1.2%	6.7%	6.9%	-7.8%
Dominion Energy	USA	86.5	0.3%	6.0%	14.1%	4.4%
EDF	FRA	8.6	2.4%	7.2%	24.2%	-13.5%
Engie	FRA	11.6	6.5%	10.1%	22.9%	-19.4%
Exelon	USA	39.9	2.5%	5.2%	12.6%	-12.5%
National Grid	GBR	961.2	2.5%	6.6%	2.4%	1.8%
AEP	USA	87.0	1.2%	6.8%	4.7%	-8.0%
HK & China Gas	HKG	13.5	0.1%	5.0%	0.7%	-11.3%
Sempra Energy	USA	131.6	1.0%	5.4%	6.0%	-13.1%

Financials (단위 : 각국 거래소 통화 기준)

Company	국가	Close	1D	1W	1M	YTD
Berkshire Hathaway	USA	286,090.0	2.7%	2.7%	7.1%	-15.8%
Ind&Comm BOC	CHN	5.2	0.0%	1.4%	0.4%	-11.7%
Bank of America	USA	26.0	4.6%	0.0%	13.3%	-26.2%
Construction BOC	HKG	6.4	0.8%	4.4%	5.0%	-5.5%
Wells Fargo	USA	28.8	5.2%	3.1%	5.4%	-46.4%
PingAn Insurance	HKG	80.0	2.0%	5.2%	2.6%	-13.1%
Agricultural Bank	HKG	3.2	-0.3%	3.6%	2.9%	-7.3%
HSBC Holdings	GBR	401.8	4.4%	1.3%	1.6%	-32.1%
Citi Group	USA	53.3	4.9%	2.1%	18.2%	-33.2%
Bank of China	HKG	2.9	0.3%	2.5%	1.7%	-12.3%

Real Estate (단위 : 각국 거래소 통화 기준)

Company	국가	Close	1D	1W	1M	YTD
Ameican Tower	USA	267.4	1.4%	6.1%	13.0%	16.3%
China Vanke	HKG	26.3	-0.4%	4.6%	6.1%	-21.1%
Simon Property	USA	72.9	14.9%	15.3%	15.7%	-51.1%
SHKP Ltd	HKG	96.2	-0.1%	3.6%	-6.3%	-19.4%
Country Garden	HKG	9.9	0.5%	4.4%	5.8%	-20.5%
Crown Castle Int'l	USA	174.6	0.0%	7.1%	10.7%	22.8%
China Evergrande	HKG	17.4	-0.5%	5.1%	32.4%	-19.4%
Overseas land&Invest	HKG	24.9	-0.4%	2.7%	-7.4%	-18.0%

<다음 주 주요 이벤트 및 경제지표 발표>

날짜	이벤트	전망 및 코멘트
6/8 (월)	현대차 美 앨라배마 공장 셧다운 예정	코로나 19 방역 조치와 생산량 조절 위해 한달간 셧다운 돌입 예정
	뉴욕시, 1 단계 경제 정상화 예정	뉴욕시가 정상화 단계 들어가면 뉴욕주 모든 지역이 1 단계 경제 정상화 돌입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BIO USA) (~12)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 나이벡이 코로나 19 치료제 등 연구결과 발표 예정
	유로존 6 월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	유럽 내 경제활동 정상화가 점차 확대되면서 전월대비 상승 예상
	中 5 월 수출	코로나 19 로 인한 선진국 경제 침체 영향으로 전년대비 -7% 전망
	日 1 분기 GDP (확정치)	잠정치는 전분기대비 0.9% 하락한 것으로 발표
6/9 (화)	OPEC+ 정례회의 (~10)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연장에 합의한 가운데 다른 산유국들의 합의 여부 주목
	美 4 월 도매재고 (확정치)	잠정치는 전월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발표
	美 5 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점진적 경제활동 재개로 4 월보다 기업심리 개선될 것으로 예상
	유로존 1Q GDP (확정치)	잠정치는 전분기대비 -3.8% 기록. 코로나 19 타격 컸던 스페인은 -5.2%
6/10 (수)	韓 5 월 실업률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부진 지속 예상
	美 5 월 CPI	전년대비 낮은 국제유가가 상단 제한하며 전년대비 0.4% 상승 전망
	中 5 월 CPI	식품 물가가 상승을 견인하며 전년대비 3.7% 상승할 것으로 예상
	中 5 월 PPI	원자재 가격 하락세로 전년대비 -2.6% 기록할 것으로 전망
	日 5 월 PPI	코로나 19 여파와 낮은 원자재 가격으로 전년대비 하락세 지속 예상
	日 4 월 핵심기계류수주	코로나 19 피해가 심했던 선진국 수요 감소로 전년대비 -9.5% 예상
6/11 (목)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코스피 200 선물/옵션 2006 등 최종거래일. 변동성 높아질 가능성
	美 FOMC (한국시간 오전 3 시)	경제전망치와 더불어 수익률 곡선 제어 방식을 사용할지 여부에 주목
	美 5 월 PPI	전월대비 0.1% 상승 기록할 것으로 전망
	EU 재무장관회의	7,500 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통과 여부 주목
6/12 (금)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300 정기변경	한진칼, 포스코케미칼, F&F 등 11 개 종목이 코스피 200 에 신규편입 예정
	美 당뇨학회(ADA) (~16)	심혈관 혜택을 입증해 계열효과 기대되는 항당뇨병제 SGLT-2 억제제가 화두
	美 6 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 (잠정치)	미국 내 점진적 경제활동재개에 전월(72.3)에서 상승한 75 기록할 전망
	유로존 4 월 산업생산	4 월 제조업 PMI 가 33.4 로 급락. 전월에 이어 하락세 지속 예상
	日 4 월 광공업생산 (확정치)	잠정치는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이동제한과 조업중단으로 전년대비 -14.4% 기록
	日 4 월 설비가동률	코로나 19 로 인한 수출 악화와 내수부진으로 전년대비 감소 예상

자료: Bloomberg, 언론기사 참조
주: 한국시간 기준으로 작성, 국제 행사는 현지시간 기준